

불심 세계화 가속... "참자유 찾는다"

1995년 올해는 저물고 있다.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각종 사고와 사건이 줄을 이었다. 급변하는 세계 조류속에서 불교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한해를 마감하며 지구촌 각국에서 일어난 불교의 움직임은 조명해 본다.

고등교육이수자 불교관심 증가

프랑스 가톨릭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도 올해 불교문화의 유입은 조금씩 이루어졌다.

프랑스 불교연합회(UBF)의 올해 통계에 의하면 불교인구는 60만 정도이며 대부분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30~50대 연령층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인들에게 심신의 안정을 줄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해주는 곳은 명상센터로 올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프랑스 문화속에서 한국불교의 정통을 유지해주는 곳은 지난 93년 토르시에 세워진 길상사. 현지교포와 유학생들에게 청정도량의 역할을 다 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인들에게도 불교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직은 언어장애와 홍보부족으로 포교활동이 활발하지는 못하지만 4월 초파일 연등행사 등으로 불교를 알리고자 하는 현지인들이 연꽃의 향기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파리/그랑지르 대학 강지숙)

종교심의회 개정종교 정가 갈등

일본 지난 여름 올진리교 독가사 사건으로 제기된 종교법인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야간의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채 막바지 고비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종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종교의 올바른 모습에 대한 논의가 어느 해보다 활발히 펼쳐졌다.

국민의 90%가 불교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종교활동이 일상생활화되어 있는 일본에서는 정치 사회 각방면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특히 지난 1월 5천5백명의 사상자를 냈던 고베지진 사건 때에는 희생자친도제를 지내주기도 하고 자원봉사자로서 재난복구활동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대사회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종전 50주년을 맞아 과거청산활동과 배상문제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오사카/대인사 주지 삼원스님)

부다가야 대탑 운영권 반환운동

인도 불교부흥운동이 확산, 불자가 급증한 한 해였다. 순수한 종교적 이유로 개종하기도 하고 카스트제도

송년특집 지구촌 불교



◇힌두교도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불교성지인 부다가야 대탑의 운영권 반환을 요구하는 인도의 스님들이 가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 범주에서 벗어나려는 신분상승의 목적으로 불교로 개종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불교부흥운동에 힘입어 인도불교도들은 현재 힌두교도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불교성지인 '부다가야 대탑 운영권 반환 운동'을 벌이는 등 인도사회내에서 불교 제자리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5만여명의 스님들이 대탑반환운동을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으며 대규모집회를 갖기도 했다.

인도의 각사찰들은 어린이교육과 문맹자퇴치를 위해 주력하는 등 지역의 민중화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다.

(바라나쉬/바라나쉬대학 이형목)

불교연합창립 40주년 행사 '성황'

독일 올해 독일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행사는 '불교연합 창립 40주년 기념행사'였다. 독일불교의 태동기가 1940년대라면, 불교연합의 40년 역사가 바로 독일불교 역사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28일부터 양일간 뮌헨에서 개최된 이 행사에는 '전통과 현대의 서양 불교'를 비롯 8개의 주제강연이 있었다. 특히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아제 아제바라야제' 등의 한국 불교영화가 상

영매 눈길을 끌었다.

현재 독일불교연합에는 2만여명의 독일인과 4만여명의 아시아계 불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하노버에서 달라이 라마(Dalai Lama) 초청담회와 열려 1천여명에 이르는 불자들이 '달라이'에 관한 달라이 라마의 법문을 경청해 독일에서 그의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

(베를린/베를린 공대 지리학 서정순)

잡양 선센터 개원 티벳불교 활기

영국 지난 여름 티벳재단(The Tibet Foundation) 설립 10주년 기념행사가 크게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여러 명의 티포체가 초청되고, 티벳무용, 만다라 제작 과정도 시연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중국사회과학원'에서 티벳 문화에 관한 강연회를 열어 주목받기도 했다.

잡양선센터(Jamyang Meditation Centre) 개원 역시 영국불교의 큰 수확으로 꼽을 수 있다. 런던 중심가에 개원한 이 선센터는 30여개의 방으로 이뤄진 대규모 선센터이다. 영국내 티벳인들은 앞으로 티벳불교를 체계적으로 포교할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영국불교협회(The Buddhist Society)는 티벳협회(The Tibet Society)와 공동으로 96년도에 달라이 라마를 초청키로 결정하고 세부작업 중이라고 밝혀 영국내 티벳불교의 비광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런던/런던 정치경제대학 이진형)

'승려후문' 계기 승단보수성 논란

태국 95년은 두차례에 걸친 '승려후문사건'과 '승려증재발급' 등 유난히 큰 시련과 변화를 겪은 해였다.

안프란(Phra Yantra) 푸토(Pavara Phutto) 스님이 연루된 이 승단사건은 환속, 형사고발로 일단락 지워졌다. 그러나 안프란스님의 경우, 태국승단에서 입지가 점점 커지는 스님과 후종세력을 제거하려는 보수적인 태국 승단의 보수성은 지적이 일각에서 일어나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태국불교는 '상가라자'(승왕)를 의장으로 한 '승가원로원'(마하테라)이 지배하고 있다.

한편 태국 승단에서는 가짜 승려를 추방하기 위해 현재 '승려증'을 재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재발급 시점이 승단 개혁을 중용하는 승려의 요구가 확산된 시점과 일치해 태국 승단의 보수성이 또 작용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관아바르/진용스님)

사찰 148곳 연합회구성 포교활발

호주 1970년대 이주민의 대거유입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호주불교는 현재 이슬람교와 함께 가장 발전적인 종교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시드니로부터 1시간 거리에 있는 '울롱공'이라는 곳에 총 2백여여원의 공사를 들여 대만 불교사 분원인 남천사(南天寺)가 개원됐다. 남천사는 앞으로 다채로운 참선교실을 마련 불교포교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호주의 불교포교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호주인은 불교교리보다는 참선, 특히 현실적인 남방권 선에 더 큰 흥미를 가지고 있다.

시드니 일원에는 148개소에 달하는 사찰과 선센터가 '호주불교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다. 이 중 한국사찰은 비구, 비구니 각각 4개 사찰로 활동이 미미한 실정이나 오는 2000년 올림픽을 전후해 도약의 발판을 모색하고 있다. <시드니/정법사 기우스님>

대규모 종교학술회의 잇달아

미국 95년 한해 동안 미주 지역에서는 대규모 종교학술회의가 다 양하게 개최됐다.

지난 8월 하와이에서 '불교와 평화'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를 비롯 10월 '동아시아와 불교 전통에서의 한국불교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UCLA 대학에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됐다. 이 세미나에는 버스웰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지난 12월 미국종교학회와 불교·기독교학회가 18일부터 22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열려, 명실공히 미주 지역의 대규모 학술회의 불을 실감케 했다.

재미한국불교의 활동 역시 두드러진 한 해였다. 지난 11월 미주불교신문 창간을 비롯 '조국평화통일 불교인협의회'가 평양을 방문한 바 있고, 윤이상 추모행사를 가졌다. 또한 '한국불교문화원'은 노인, 극빈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운동에 정성을 기울였다. <LA/관음사 도안스님>

정리=남수미·오종욱 기자

불교방송·불교TV 불만한 연말연시 특집프로

불교방송		불교TV	
프로그램	방송일시	프로그램	방송일시
올해의 빛나는 불자들	12/25~30 (17:20~18:00)	영성포교연	12/29 (10:10~11:10)
이웃에게 부처님을 찾습니다	12/29 (09:05~10:55)	올해의 부처님 보았나	12/31 (10:00~10:50)
미국속의 한인 경찰	12/31 (16:05~16:40)	신중생상선지	1/1~4 (13:20~13:35)
방자녀 권선징계 듣는다	1/1 (08:20~09:00)	사랑해요 부처님	1/1 (12:30~13:20)
소리로 듣는 연가정	1/1~2 (11:20~12:00)	마라도 불국토의 꿈	1/2 (10:00~11:00)
남이다 흥남날 되소서	1/2 (08:20~09:00)	롬바니의 신 새벽	1/2 (12:30~13:20)
미국속의 한국불교	1/2 (10:05~10:55)	신년특집의 힘과 희망	1/6 (10:10~10:50)

종단 단체들과 종단지도자들의 96년 계획을 듣는 '새해설계를 듣는다'와 산사스님들의 솔바람 같은 신년메시지 '산중영상편지' '남마다 좋은 날 되소서', 병자년 생활의 기준을 제시할 신년기획대담 '박영재·이기영'을 편성했다.

또 민족의 영산 금강산 정기를 통해 통일을 염원해보는 '금강산 건봉사', 불자연예인 총출동 '우리모두 부처님 됩시다', 세계각국 불자들의 하얀년 부처님세상을 향한 해외리포트 '롬

바니의 신 새벽', 최남단 마라도 불자들의 삶이아기 '불국토의 꿈'이 방영된다.

특히 불교TV는 96년 '불교청소년의 해'를 맞이하여 미스코리아 이영연의 진행으로 시명스님과 종합학교 학생들이 함께 하는 '사랑해요 부처님', 청소년 포교의 나날 방향을 점검하고 밝은미래를 제시해보는 '청소년 포교의 현실과 전망' 등을 방송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불교방송과 불교TV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다채로운 특집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송한다.

(표 참조)

불교방송은 송년·신년특집으로 13개 프로그램을 가련했다. 개혁 1년 교계의 한해를 되돌아보는 '불교계 1년을 되돌아보

년 새이름 르스님께 듣는다',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소리로 듣는 연가정', 대덕스님의 법문과 불자들의 발원을 엮은 '남마다 좋은 날 되소서', 불교연인의 나이갈 길을 되돌아보는 '불국토를 연다'와 유망신인들과 함께하는 '96 가요계 셋발들

'불국토를 연다' '미국속 한국불교' 등 신행프로 푸짐

BBS 송년·신년특집 다채 bfn

'마라도 불국토의 꿈' '사랑해요 부처님' 등 불만

다'와 보신자 제야의 종소리를 생방송하는 '기쁜 해 오는 해', 각 분야에서 전법복지에 전력을 불자들이 초대하는 '올해를 빛낸 불자들', 송년특집 '96 가요총결산'을 방송한다.

또 신년특집으로는 원로대덕스님의 새해법문을 듣는 '병자

의 행진'을 편성했다.

특히 불교방송은 송년·신년특집으로 미국현지제작 프로그램 '미국속의 한국불교' 시리즈 세편을 방송한다. LA형사반장이며 교포2세인 마키영씨의 도반 만들기 여념없는 신년생활을 소개하는 후연다큐 '미국속의

불교TV는 송년특집프로그램으로 불교계의 1년을 점검해 보는 '96불교계 결산', TV특집 '올해의 부처님을 보았나', 영상포교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영상포교의 원년', 불교계 1년을 돌아보는 '불교계 10대뉴스'를 방송한다. 신년특집 프로그램으로는 각

보림사서 '월인석보' 제25권 발견

우리나라 최초의 국역 대장경으로 지금까지 24권으로 추정해 온 <월인석보(月印釋譜)>의 제25권이 새로 발견됐다. 특히 제25권은 세종5년(1459)에 간행된 초간본이어서 학계가 더욱 주목하고 있다.

문화재연구소가 지난 15일 공개한 <월인석보>의 제25권은 순천대박물관이 지난

2월 전남 장흥군 보림사 사천왕상 몸체속에서 발견한 복장전적(復藏典籍) 1백89책 가운데 하나다. <월인석보>는 수양대군이 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석보상절>과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 등을 저본으로 삼아 세조가 간행한 것으로 지금까지 24권으로 간행됐다는 게 정설이었다.

연말연시 선물은 정성스럽게 고른 한권의 불서로

또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한 해 동안 뜻이 보살과 주신 가족·친지·그리고 벗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따로 이 '상품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이 제대로 된 한권의 불서를 만남으로 인해 충만한 가슴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의 첫 출간 서적! -한 정신과 의사의 남산 석불 이야기-

돌부처

-세월과 바람이 빛은 한국인-

* 회원에 한해 2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찾아 오시려면

안국역

● 한국일보사

● 조계사

재주은행

● 평화로

● 현대불교신문사

● 책방 여시아문

농성

● 공평빌딩

● 운주사

종로3가

● 종각역

● 광화문

돌부처

정신과 의사 이근우 박사의 남산 석불 이야기 그 첫 번째 세월과 바람이 빛은 한국인

10년 여에 걸친 정신과 의사 이근우 박사의 고집스런 돌부처 사랑, 그 결정체!

눈뜬 채 코 베이고도 허벅지 옷은 돌부처. 우리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치마폭에 안고온 돌부처와 와 저마다 여기 저기 풀어 놓고 간 생사고락의 모든 이야기 보따리들. 복잡하게 얽힌 세간사의 이야기들을 천 년의 미소로 간직해온 돌부처, 우리들의 얼굴. 때로는 전문가의 안목으로, 때로는 정신과 의사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펼쳐 보이는 경주남산 석불이야기. 결국 우리에게 삶의 이야기로 귀결되는 돌부처의 메시지!

80여 컷의 생생한 사진과 함께 남산 부처님의 내밀한 세계로 들어가 보십시오

신국판 256쪽/값 6,500원/도서출판 여시아문

신경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근우 박사의 10년 남의 세월 동안 석불문화에 매진하고 있는 사진 작가이자 문화 애호가이다. 1980년부터는 몇몇 동료들과 한국석불문화연구회를 결성 석불부처를 통해 민족의 얼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되찾는 문학적 활동을 시작했으며 '내날' '그곳' '1992' '돌부처 4가지' (1984) 등 여러 차례의 사진전도 가진 바 있다.

도서출판 여시아문